

제목: "큰 용사 기드온"

말씀: 사사기 6장 11-16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벌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미디안 사람들을 통하여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은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그가 큰 용사가 됩니까?

- 1) _____ 틀에서 타작하던 기드온 (11절)
- 2) _____이 많던 기드온 (17절)
- 3) _____의 사람이 된 기드온 (20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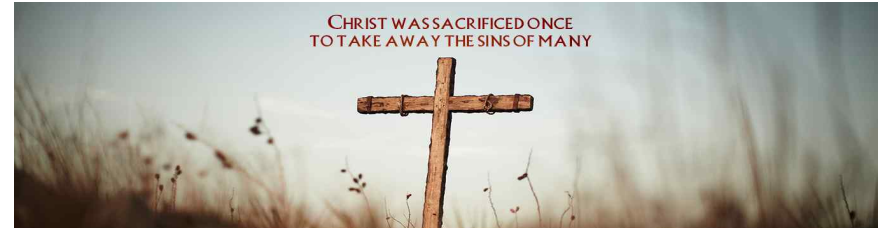
우리교회가 섬기는 선교지	
백남일 선교사	북아프리카, 프랑스 이슬람권 사역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교회개척 및 목회자 사역
깊은 뿌리 나무 (Deep Roots Church)	한인 2세를 중심으로 개척 된 다민족 교회(뉴저지)

지난 주 헌금	
십일조	
주일	
합계	

오레곤 새로운 교회는

예수님을 만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교회는 인생의 슬픔 끝 그리고
행복이 시작 시작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인생과 영원한 삶을 위하여
성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오레곤 새로운 교회로 초청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
"Let us Give a Brand New Heart to God" (2 Corinthians 5: 17)



주일예배 Sunday Worship Service

오후 12시 30분
12: 30 PM

인도: 김성민 목사
President: Rev. Jason Kim

- *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Call to Worship President
- * 찬양 다같이
Praise All Together
- 예배를 위한 합심기도 다같이
Prayer All Together
- 성경말씀 사사기 6장 11-16절 설교자
Scripture Reading Judges 6: 11-16 구약 369 페이지 President
- 말씀 "큰 용사 기드온" 김성민 목사
Message The Mighty Warrior Rev. Kim
- 성찬식 다같이
Communion All Together
- 헌금/기도 다같이
Offering and Prayer All Together
- 광고/환영 인도자
Announcement President
- * 찬양/헌신기도 주님 내가 여기있사오니 다같이
Praise and Prayer Lord Here I am All Together
- * 축도 설교자
Benediction Rev. Kim

오레곤 새로운교회 New Church of Oregon
(예배 장소) 3228 SW Sunset Blvd Portland OR 97239 (503)332-1941
(St. Andrew's Presbyterian Church)
www.newchurchoregon.com newchurchoregon@gmail.com
담임: 김성민 목사 (Rev. Jason Kim, Senior Pastor)

담임목사 컬럼 (허리 부상)

지난 주 허리를 다쳤다. 특별히 다칠 이유는 없었다. 보통 하던 일들을 하곤 했는데 그날 아침 갑자기 허리에 약한 진동이 생기더니마는 한 시간 후부터 앉지도 서지도 못하게 되었다. 도저히 감당 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맡기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땅바닥에 들어 눕는 데도 시간이 걸렸고, 일어날 수는 없었다. 도저히 가만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힘들게 병원을 찾았다. 척추에 심각한 이상이 생긴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두 시간을 기다려 의사를 만났는데 이렇게 저렇게 조사를 하더니 척추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 다행이다. 하지만 척추를 붙잡고 있는 힘줄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물건을 들어 올릴 때에 바른 자세로 몸을 일으켜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며 약을 처방해 주었다. 힘줄을 느슨하게 해 주는 약이란다. 집으로 돌아와 그 후에 5일간 꼼짝을 못했다. 한 번 들어 누우면 일어나기까지 한 2-30분은 걸린 것 같다. 그래서 한 번은 그냥 일어서서 있었던 적도 있다. 약은 듣지도 않았다. 내가 감당해야 할 고통이었나 보다. 그렇게 3-4일을 지나니 조금 나아지기 시작한다. 그래도 교회는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만 한 주를 보냈다. 그래도 이만 하기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하고 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 보니 문제는 나에게 있었다. 나는 물건을 들어 올릴 때에 물건을 들고 몸을 틀 때가 많았었다. 물론 공간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를 말하면서 말이다. 하지만 나의 허리는 공간을 알지 못한다. 내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따라 올 뿐이지 않은가? 그 의사의 이야기가 정확히 맞았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자신의 자리가 있고 자세가 있지 않을까? 뻘뻘어진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은혜를 받을까? 뒤틀린 모습으로 봉사한다고 그것이 헌신이 될까? 그렇지 않다. 분명 믿음생활에도 바른 모습이 있다. 바른 모습으로 해 나아갈 때에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게 되고 승리로 전진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의 경외하라 정녕히 네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네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잠언 23장 17-19절)라고 하신다. 나 스스로를 바른 길로 인도하라는 말씀이다.

그렇게 할 때에 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늘 부상을 당하고, 녹이 나고, 삔격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나에게 바른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일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이다. 그것이 불편하고 잘 되지 못할 것 같이 보여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인생이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

물건을 들고 몸을 틀지 말고 두 다리를 알맞게 벌려 다리의 힘을 일어나는 습관을 키워야겠다. 한 번 아프면 회복하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교회소식

1. 환영합니다

오늘 오레곤 새로운교회 주일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마음껏 사랑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2. 기도의 삶

이번 주 기도제목

- 1) 성도들 모두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 2) 더욱 서로 사랑하여 한마음 되는 교회 되도록
- 3) 새로운 등록한 성도들이 믿음생활과 교회에 잘 정착하도록
- 4) 교육부 사역이 시작되도록
- 5) 건강 회복이 필요한 성도들을 위하여 (김예식 성도의 회복을 위하여)
- 6) 선교지를 도우며 열정적으로 전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 7) 모두 Covid-19을 통한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 8) 교회 비전에 맞는 찬양 사역자를 위하여
- 9) 우리교회를 통하여 다음 세대 교회가 세워지도록
- 10) St. Andrew's 교회 사역을 위하여
(5월 30일 모든 교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합니다)

Deep Roots Church: 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백남일 선교사: 프랑스 Covid-19 에서의 온 가족 안전
특별히 사모님의 건강을 위하여
Silk Wave 선교회: 터어키 개신교 목회자들을 위하여

3.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5월 중에는 새벽기도회 후에 친교가 없습니다.

4. 8월 생명의 삶

생명의 삶 8월호를 받아 가시고 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5. 날씨

이번 주 많이 덥다고 합니다. 늘 건강 조심하며 건강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6. 교회 웹 사이트 주소와 이 메일 주소

웹 페이지 주소: www.newchurchoregon.com

이 메일 주소: newchurchoregon@gmail.com